

한협 가금 육종(주)의 출범



한협가금 육종주식회사라는 양계인들의
주식회사가 창립을 했다. 발기인회와 창립
총회, 대표 이사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한
협가금육종(주)을 알아 보자. <취재부>

▶ 발기인들은 ?

- 강 금 로(신촌가금부회장 대표)
- 김 재 춘(한국가금협회장)
- 김 현 배(서울 사료 이사)
- 민 덕 기(구리부회장 대표)
- 박 도 현(동신종축장 대표)
- 신 정 재(S F 과학 사료 대표)
- 오 세 정(건국대 교수)
- 유 윤 수(한국 사료협회 부회장)
- 이 계 조(천호부회장 대표)
- 정 동 현(춘천 부회장 대표)씨 등이 발기인으
로 구성되어 있다. 이상의 명단에서 보는 바
와 같이 학계, 업계, 관련 단체 등 양계에 관
련된 모든 기관이 총 망라되어 있는 느낌을
주고 있다.

▶ 사업목표는 ?

- 종계 개량과 증식 가금부화 및 보급사업, 가
금기술자 양성, 기술보급 및 간행물 발간사
업, 가금에 관련된 수출입업, 가금사료 및 기
구제조업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 한마디로 말
하면 가금에 관한 모든 일을 하겠다는 것이나
가장 큰 사업으로 얘기한다면 가금개량과 증
식 즉 국산계의 개량과 증식사업이라 할 수
있겠다. 국산계를 개량하여 국산계의 능력이
국제 수준을 능가할 수 있는 우수한 종계를
생산하여 우리나라의 양계산업에 이바지함은
물론 여건이 성숙하면 수출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한다.

▶ 자본 구성

총 소요자금은 3억원이나 현 여건하에서 우선
7,000만원의 자금으로 종계구입과 시설구입비로
충당하고 운영자금은 차입금에 의존하기로 하였
으며, 토지와 건물은 자금이 조성될 때까지 임
차하여 사용하도록 하며 자본금 7,000만원은 주
식으로서 발행하기로 결의하고 주식 1주당 액면
10,000원씩 총 7,000주를 발행하기로 하고 7,000
주 중 5,685주를 발기인이 인수하고 잔여 1,315
주를 주식 청약하였던 바 1,000주에 달하여서
자본금 7,000만원이 마련되어 창립총회를 이루
게 되었다.

이의 주주구성을 보면 박도현씨의 37명으로서
다양하게 이루어 졌으며 주주중 업 계의 주요인물
들을 살펴보면 박도현(동신종축장) 김재춘(가금
협회장) 이필용(소신종계원) 오세정(건국대) 이
계조(천호 부회장) 이상윤(대구 신기농장) 민
덕기(구리 부회장) 김 영희(영육 농장) 주원술
(함일 농장) 라재면(신성 부회장) 강금로(신촌
부회장) 신정재(S F 과학사료) 정동현(춘천 부
회장) 정재덕(신일 부회장) 김현배(서울 사료)
이민재(삼능 부회장) 최상진(조일 부회장) 이하
순(해동 부회장) 윤경중(서울 부회장) 차상진
(봉명 부회장) 배선복(삼화농원) 김영석(경인
부회장) 김수동(창동 부회장) 유윤수(사료협회)
이재근(고려대) 김정현(계림목장)씨 등으로 구
성되어 있다.

▶ 생산계획

한협의 가장 주축을 이루는 종계 개량사업에
대한 종계확보방안과 시설, 생산계획을 보면 아
래와 같다.

즉, 시설은 초년도인 72년에는 원원종(PL) 원종(GPS) 및 시험계 35,000수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며 배부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미배부 초생추는 자가 농장에서 사양하며, 종계 확보문제는 원원종(PL) 원종(GPS) 종계(PS)를 확보하여 년차적으로 원원종(PL)과 원종(GPS)을 증식 보유하고 종계는 감축하되 야외 실험용만 계속 확보한다.

또한 생산계획은 백색산란계와 중형 전용 육용계는 73년부터 종계(PS)를 분양한다.

백색산란계는 수입계에 비하여 모든 면에서 조금도 손색이 없으며 중형 전용 육용계는(8주 1.5kg) 초생추 가격이 저렴하고 체형과 경제성이 대형 전용 육용계에 못하지 않음.

갈색 산란계와 대형 전용 육용계의 종계는 74년에서 75년에 분양할 예정이다.

이 이외에 시설이 완비되고 신용도가 높은 종계장을 선발하여 종계(PS)를 분양하고 그 농장에서 생산되는 종란을 특약부화장에 알선 판매토록 하며 전국 각 지에 특약부화장을 설정하고 종계를 분양하여 특약 부화장의 요구에 따라 위탁 종계장에서 생산되는 종란도 알선하되 이에 대한 사후 관리책으로서 위탁종계장과 특약부화장은 본사와 상호간에 기술을 교류하고 각 기술자를 본사에 파견하여 실습케 할 것이며 한편 본사에서는 양계에 관한 양성원을 모집하

여 기술을 습득시키고 위탁종계장과 특약부화장에 알선하여 사업을 유익하게 지향하도록 하다.

▶ 출범은 했지만

상기와 같은 사업계획을 가지고 지난 10월 28일 한협은 출범을 했다. 이 창립총회의 자리에서 김영진축산국장은 축사를 통하여, 「가금의 육종이란 장구한 시간이 요하는 일이며 사실은 정부가 나서서 해야될 일이나 이렇게 선각자의 위치에 있는 양계인들이 협동하여 이룩하겠다는 강한 뜻에 대하여 앞으로 정부에서도 도울수 있는 길이 있다면 열과 성의를 가지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격려했었다. 이 자리에서 대표 이사로 추대된 박도현씨는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다.

「육종사업은 너무나 어렵고 장구한 시일을 요합니다. 그러나 만큼 일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이 가능하다면 전 양계인이 참여하여 여기에 온갖 정성을 쏟아 넣는다면 이 사업은 분명히 이룩될 수 있으리라는 확신에 차 있습니다. 이것이 주주의 회사가 아닌 양계인 전체의 회사라는 점을 이해하시고 본 사업이 국내 양계업의 일대 전환점에서 있음을 기억하시고 계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

일단 출범은 했지만 문제점은 많다. 순수한 영리추구라는 입장보다 더 큰 대의 명분을 가진 사업이라는 점에서 이 사업이 가지는 어려움이 많을 것이고 소액주식에 의하여 보다 많은 양계인이 참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더욱 많은 문제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이 한협을 잘 이끌어 나갈 수만 있다면 「뭉치지 않는 민족」이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고 국내의 어느 산업 분야에 비하여 가장 높은 수준의 생산업체라는 영광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 속에서 갈채를 보내고 싶다.

<김영욱記>

년차별 종계 증식계획

년도별	종별 원원종(PL·GG)	원종(GPS)	종계(PS)
1972	6,800수	7,500수	11,000수
1973	8,000수	18,600수	6,000수
1974	9,000수	22,000수	1,500수

년차별 종계 및 종란 생산계획

년도별	종계(PS)	종란(CC)
1973	240,000수	1,390,000개
1974	603,000수	600,000개
1975	660,000수	150,000개